

‘매운맛’ 페퍼스, 흥국생명 잡고 ‘구단 최다’ 신기록 잇는다



오늘 홈 경기... ‘부동의 1위’ 상대 9승·4연승 도전
박정아·테일러·이한비 앞세워 ‘전 구단 상대 승’ 노려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홈에서 ‘구단 최다’ 9승과 4연승에 도전한다. 페퍼스는 16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상대로 기록 잇기에 나선다. 페퍼스는 지난 12일 경기 수원체육관에서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3-1로 누르고 시즌 최다 ‘8승’과 첫 ‘3연승’을 달성했다.

지난달 29일 V리그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3-2로 꺾고 구단 최다 ‘6승’을 작성했던 페퍼스는 2경기 만에 다시 만난 현대건설을 상대로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021-2022시즌 3승 28패, 2022-2023-2023-2024시즌 5승 31패에 그치며 ‘승점 자판기’라는 별명에서 자유로워 수석이 붙었던 페퍼스지만, 현대건설전 우위를 점하며 후반기 첫 ‘승점 3’을 만든 팀이 됐다.

현재 5위(8승 12패·승점 24)에 자리한 페퍼스는 4위 IBK기업은행 알토스(11승 9패·승점 33)와 격차를 ‘승점 9점’로 좁혔고, 선수단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페퍼스는 1위를 상대로도 장꺼기에 나선다.

이번에 홈에서 만나는 흥국생명(15승 5패·승점 45)은 리그 개막 14연승을 달성하는 등 이번 시즌 ‘부동의 1위’를 기록 중인 만만치 않은 상대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최다 득점을 책임지던 외국인 선수 투트쿠가 지난달 17일 정관장에서 왼쪽

무릎 힘줄 파열 부상을 당한 뒤 팀 전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시 교체 외국인 선수 ‘마르타 마테이코’가 지난 7일 GS칼텍스전에서 데뷔전을 치렀지만 겨우 3득점에 그쳤고, 이후 11일 한국도로공사전에서는 27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다.

‘배구여제’ 김연경이 팀의 중심을 잡으며 분전하고 있지만 원활하지 않은 공수로 흥국생명은 2위 현대건설(14승 5패·승점 43)에 승점 2점 차로 쫓기고 있다.

이번 시즌 흥국생명을 제외한 모든 구단을 상대로 승전고를 울린 페퍼스가 투트쿠의 공백을 틈타 ‘전 구단 상대 승’에 나선다.

페퍼스는 박정아와 테일러-이한비로 구축한 탄탄한 삼각편대를 앞세워 흥국생명전 승리를 노린다.

박정아는 앞선 현대건설전에서 블로킹 3개를 포함해 12득점을 기록하며 여자부 역대 통산 2번째 6000득점(현재 6007점)의 고지에 올랐다. 이번 시즌 32.6%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 중인 박정아는 아쉬운 리시브(리시브 효율 15.76%)에도 팀의 위기 순간마다 주특기인 공격력을 발휘해 ‘클러치 박’의 능력을 입증했다.

테일러도 지난 9일 IBK기업은행전에서 개인 1호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깨 부상을 호소한 자비치의 대체선수로 지난 1라운드 페퍼스에 합류한 테일러는 한국 V리그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6일 홈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상대로 ‘구단 최다’ 9승과 4연승에 도전한다. 지난 12일 현대건설과의 원정경기에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는 페퍼스 선수단. (KOVO 제공)

최근 완벽 적응한 모습으로 주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36.33%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 중인 이한비는 최근 2경기에서 개인 최다 20득점을 올리는 등 창단 첫 3연승의 주역이 됐다. 리시브 효율은 19.70%로

높지 않지만 특유의 강한 공격력과 기복없는 플레이로 팀의 질주에 기여하고 있다.

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주전 세터 이원정과 마들 블로커 하혜진을 대신해 박사랑과 염여령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고, 높은 타점의 장위와

베테랑 리베로 한다혜가 고른 활약으로 마네 구단의 반란을 연출하고 있다.

페퍼스가 안방에서 ‘1위’ 흥국생명을 꺾고 구단 최다승과 최다연승을 경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 풍암고 장재호·전남체고 김승주, 펜싱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

2월 쿠웨이트 아시아선수권 출전

광주·전남의 ‘펜싱 꿈나무’ 전남체고 김승주와 풍암고 장재호(이상 1년)가 2025년도 유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3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과 바다비체육관에서 마무리된 ‘2025 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활약하며, 오는 2월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김승주는 여자 플뢰레에서, 장재호는 남자 플뢰레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유소년 대표로 선발됐다.

이번 대회 플뢰레, 에페, 사브르 등 총 6종목의 상위 3명이 세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고, 이들과 함께 각 종목 4위는 아시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한국 대표로 나서게 된다.

장재호는 “16강부터 힘이 들었지만 유소년대표가 되겠다는 목표를 생각하며 참고 계속 뛰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멋진 선수가 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2025 펜싱 유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된 풍암고 장재호(오른쪽)가 ‘2025 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를 치르고 있다. <풍암고 펜싱부 제공>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총 102.44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성과평가 전국 1위

생활체육교실 지원 등 높게 평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7년 연속 ‘A’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추진한 장애인생활체육사업에 대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총 102.44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사업(50%)·현장(30%)·행정(10%)·정책(15%)·위원회 평가(5%)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평가에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190개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1만 명 참

여) ▲공공스포츠클럽 및 전남장애인체육센터 운영 ▲우수체육시설 선정(여성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를 통해 도장애인체육회는 우수 시도 인증패와 2025 장애인생활체육사업에 지원되는 국비 약 2억 원을 수령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펼친 도민들이 있었기에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평가에서 총 97.72점을 기록해 17개 시도 종합 3위, 8개 특·광역시 중 1위에 올랐다. 7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된 시장장애인체육회는 교실사업 등록인구 증가율 상승·동호인 및 교실 유형의 균형적 지원·참가자 만족도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한국 선수단,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종합 2위 목표

24일 결단식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종합 2위 수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대한빙상경기연맹 등 동계종목 경기단체에 24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한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결단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회째를 맞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이번 하얼빈 대회에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산악스키 6개 전 종목에

2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동계 아시안게임은 1986년 일본 삿포로에서 1회 대회가 시작됐고, 이번 대회는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2017년 삿포로 대회 때 금메달 16개를 따내 일본(금 27개)에 이어 2위에 오른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 중국과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